

# REPORT



과목명		생활 속의 실용금융
담당교수		김진옥 교수님
학과		응용통계학과
학년		4
학번		201452024
이름		박상희
제출일		2019년 10월 8일

##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해 먼저 이해하라.

지금까지 통장 개설, 체크카드 개설 이외의 금융 거래는 일체 해본 적이 없고, 주택 청약, 보험 등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를 해주셔서 크게 와닿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 처음 참가했던 금융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대해 느꼈던 기억들을 씁니다.

### ■ 목차

1. 데이터 분석의 첫 공모전 “미래에셋대우 금융 데이터 공모전”
2. 좋은 인사이트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3. 공모전을 하면서 느낀 점

### ■ 데이터 분석의 첫 공모전 “미래에셋대우 금융 데이터 공모전”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저는 3개월간의 미래에셋대우에서 주최한 “빅데이터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주제는 금융데이터 분석과 금융 서비스 개발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고,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에 관심이 많았기에 금융데이터 분석에서 주가예측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공모전 진행에 앞서 여의도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의 공모전 관련 브리핑이 끝나고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저마다 데이터 분석 혹은 기술에 관하여 수준 높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30분 가까이 질문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가 될 즈음 설명회 시작에 앞서 이번 공모전의 책임자인 본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으로 한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여기 계신 대학생 대학원생분들 모두 현업 수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 앞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 분석만 한다면 데이터는 숫자에 불과하다.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주가 데이터를 분석하면 금융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좋은 모델 좋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그게 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개월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차츰차츰 본부장님의 얘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 좋은 인사이트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년 동안의 미래에셋대우에서 다루고 있는 500여 개의 회사들의 주식의 거래량, 시가, 종가, 거래량 등이 담긴 데이터였습니다. 먼저 실제로는 어떻게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하는지 뉴스, 블로그, 논문 등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융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



제 2회 미래에셋대우  
**빅데이터 페스티벌**

금융과 빅데이터의 만남!  
대학생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기다립니다!

행사기간: 2018.06.08 ~ 09.12 | 참가인원: 2018.06.08 ~ 06.22 (74,000명)

**참가자격:**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개인 및 팀 (최대 3인)

**공모주제:** 두가지 주제 중 택 1

- 주제 01: 금융데이터 분석
  - 주가예측
  - 투자 전략 알고리즘
  - 금융 소셜네트워크 텍스트 마이닝
- 주제 02: 금융서비스 개발
  - 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
  - 증권/금융 서비스 개발
  - 사행/고위험성 결과 정보 서비스

**제출방법:** 서류제출: 보고서 (문제 코드 및 알고리즘 첨부)  
후회 참가자에 한해 제출 방법 별도 공지

**심사기준:** 적합성/논리성(40), 창의성/독창성(40), 실현가능성(20)

**시상내역:** 총 2,500만원 / 총 15명 선정

구분	상금	인원
대상	1,000 만원	1명
최우수상	800 만원	1명
우수상	300 만원	3명
장려상	40 만원	10명

**입상자특전:** 입상실 제공(2명), 입상자행사 서류전형 면제(5명)

공모전 포스터

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고가, 저가, 종가 등)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과 기업의 재무제표, 이슈, 사회 현상 등을 통해 주가를 예측하는 “기본적 분석”을 적절히 섞어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ROE, PES, 단기이동평균, 장기이동평균, MACD 등등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자인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를 가진 성향인지 등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 각기 중요시 하는 지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가 목적인 투자자는 단순히 내일, 일주일 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바라기 보다는 1년 뒤에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비록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대기업이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보면서 KOSPI200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KOSPI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다 산업 분야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도 알아냈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시장 시세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산업은 주가 변동이 크고, 어떤 산업은 1년 동안 주가 변동 폭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뉴스에서 보고 그 뜻을 알지못해 넘겼었던 주식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분석 알고리즘과는 달리 주가 데이터에는 “시계열”이라는 매우 중요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금융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열 특징을 무시하면 주가가 가지고 있는 주기성, 계절성 등을 모두 무시한 채 무의미한 분석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공모전을 하면서 느낀 점

비록 공모전에서 입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진 못하였지만, 금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식 말고도 채권, 옵션, 선도계약, 선물계약 등에 관심이 생겨 학교 통계학 전공 이외에 교양과 일반 전공 등의 관련된 수업들을 찾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막 학기가 지나면 사회로 나가게 되는 사회초년생으로써 지금까지 어렵다고 피하기만 한 금융거래에 대해 이제는 차근차근 공부하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볼 생각입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놓고 있는 돈을 현명하게 굴리는 법, 주택 청약, 대출, 금융권 종류 등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상식 공부 등을 할 생각입니다. 금융에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봤을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해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제가 직접 만든 분석 모델로 주가를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